

(주)레노바, 국제 P4G 정상회의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약속...관심 집중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 간 온라인 형식... 'A Greener Planet with Innovative Energy Solutions' 토론회 개최

이정진 leej0537@ekn.kr

최종 기사일력 2021-06-14 15:27:54



▲지난달 30일과 31일, 온라인 형식으로 개최된 제2차 P4G 정상회의(제공=주)레노바)

[여수=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주)레노바신재생에너지코리아(이하 (주)레노바)가 그린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한 국제 민간 네트워크인 제2차 P4G 정상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 국내 시장의 확대 의지를 표명했다.

(주)레노바는 일본에서의 성공적인 태양광, 바이오매스, 지열 및 해상풍력 개발 및 운영을 바탕으로 일본 증시에 최초로 상장된 신재생에너지 개발·건설 기업이다.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 간 온라인 형식으로 개최된 제2차 P4G 정상회의에서 (주)레노바 요스케 기미나미 대표가 'A Greener Planet with Innovative Energy Solutions' 토론회에 참석해 또 다시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확대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P4G 정상회의는 덴마크와 한국 등 12개 가맹국이 녹색성장과 글로벌 활성화를 위해 2년마다 번갈아 여는 정상회의이다.

지난 2018년 10월에 개최된 제1회 서밋은 덴마크에서 개최되고, 제2회 서밋은 한국에서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 간 한국 정부 주최로 비대면·온라인 형식으로 개최되어 동영상 전송 사이트를 통해 라이브로 공개됐다.



▲제2차 P4G 정상회의에 참석한 요스케 기미나미 대표(제공=주)레노바)

이날 요스케 기미나미 대표는 아시아 각지에서 지역과의 공존공영을 내걸고 이념을 공유하는 현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개발에 대한 의지와 회사의 개발 체제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개최국인 한국에서 한일 합작사업으로 개발 중인 초도(전남 여수)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사회와의 파트너십을 존중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사업 개발에 대한 합의를 얻어 순조롭게 각종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주)레노바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공존공영, 상생협력의 균형 정신이 공존하는 초도해상풍력(주)과 파트너십 계약을 맺은 바 있다.

leej0537@ekn.kr

이정진 (leej0537@ekn.kr)

< 저작권자 © 에너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경제의 힘, 에너지경 >